

류현진 “자진강판 잘한생각…다시 정상 훈련” 우려 덜어

탬파베이전, 3중이닝 무실점
오른쪽 둔부 통증 자진 강판
“부상이라 생각하지 않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마운드를 일찍 내려간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부상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덜어냈다.

류현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등판했다.

그러나 마운드를 오래 지키지 못했다. 류현진은 3회이닝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호투를 펼치던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4회말 2사 후 마누엘 마르코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은 뒤 하체 쪽에 불편함을 호소, 결국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이 오른쪽 둔부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 나선 류현진

은 “마르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마르코에게 초구를 던지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 결과적으로 일찍 내려왔지만 잘한 생각 같다. 테스트를 했을 때 괜찮게 나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른 강판에 긴장된 시선이 쏠렸지만, “빠르게 멈춘 게 잘한 거 같다”며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이스의 이탈은 팀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현지 취재진도 류현진의 몸 상태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류현진은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만큼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류현진은 “부상은 아닌 것 같다. 몸에서 긴장 증세가 나타난 거 같은데 심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2014년 8월에도 이번과 비슷한 오른쪽 둔부 염좌 증세로 부상자명단(IL)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그때랑은 부위도 다르고, 전혀 그때 느낌도 아니다. 예전엔 마운드 내려올 때까지 이런 느낌도 있

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다. 전혀 그때랑은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몸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만큼 정상적으로 훈련도 이어갈 전망이다.

“내일 당연히 느낌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부상자 명단까지 안 갈 거 같다”고 말한 류현진은 “내일부터 정상적인 훈련을 시작할 거 같다. 이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에 불펜에서 10~15구 정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내일부터 똑같은 스케줄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몸에 이상을 느끼기 전까지 만족스런 피칭을 펼치고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경이다.

류현진은 강판 전까지 투구에 대해 “준비된 대로 잘 진행됐다. 내려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타자들이랑 상대하면서 준비한대로 잘 됐고, 제구도 그렇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한숨을 삼켰다.

만일 류현진이 빨리 마운드를 떠났지만, 구원진의 릴레이 호투가 펼쳐지며 토론토는 탬파베이를 1-0으로 꺾었다.

류현진은 “개막 후 투수들이 너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25일(한국시간) 미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회 투구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마운드에서 몸 상태를 논의하고 있다. 류현진은 3회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5삼진으로 호투했지만 4회 2사 후 근육 통증으로 자진 강판하면서 2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잘해주고 있다. 오늘 같은 상황 때문에 중간 투수들이 많이 투입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중간 투수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마 음을 전했다.

뉴스

여주시청 육상팀, 전국실업육상선수권 3개 메달 획득

포환던지기 정일우 은메달...10000m 경보 이세하·높이뛰기 김은정 동메달



포환던지기에서 17m 56cm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한 정일우 선수

여주시청 육상팀이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서 3개의 메달(은 1·동 2)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선수권대회서 정일우는 포환던지기에서 17m 56cm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세하·김은정은 10,000m 경보 종목에서 47분 39초, 높이뛰기 종목에서 1m65cm를 넘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대회가 계속 연기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면서 “여주시 소속의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육상팀은 이 기세를 이어 5월 18일부터 5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2021년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하게 된다.

여수=오상호 기자

‘2G 연속포’ 오타니 홈런(7개) 공동선두

오타니 쇼헤이(27·LA 에인절스)의 방망이가 불을 뿜는다.

오타니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안타 하나가 결승 홈런이었다.

오타니는 2-2로 맞선 8회 선두타자로 나와 휴스턴 구원 투이스 가르시아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솔로포를 날렸다.

오타니의 대표로 리드를 잡은 에인절스는 휴스턴을 4-2로 꺾었다.

오타니는 전날(25일) 휴스턴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홈런으로 시즌 7호포를 신고, 메이저리그 홈런 공동 선두로도 올라섰다.

로널드 아루냐 주니어(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닉 카스테야노스(신시내티 레즈), 벨스 코루스(미네소타 트윈스), 에두아르도 에스코바(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J.D. 마르티네스(보스턴 레드삭스), 라이언 맥마흔(콜로라도 로키스)이 각각 7홈런으로 오타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MLB닷컴에 따르면 조 매든 에인절스 감독은 경기 후 “오타니는 어떤 것도 피하지 않는다. 자신의 타석에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오타니가 내일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면서 타석에도 서길 바라고 있다”며 “그가 야구를 하고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이것 뿐”이라고 칭찬했다.



‘8K 첫 승’ 김광현, 오는 30일 필라델피아전서 시즌 2승 사냥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6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처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마이크 실트 감독은 당분간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24일 신시내티 레즈전부터 5월10일 콜로라도 로키스전까지 자유의 17연전을 치른다.

기준대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경우, 선발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요한 오비에도를 로테이션에 넣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투수들은 5일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김광현은 로테이션대로 나올 경우, 30일 오전 2시 15분 부시스타디움에

서 열리는 필라델피아와의 홈경기에 등판한다.

김광현은 지난 24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5회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해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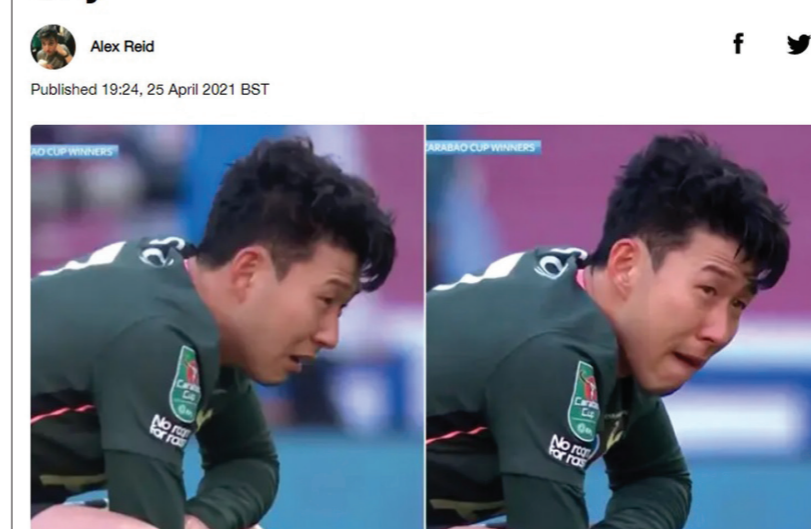
하리 통증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김광현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와의 첫 등판에서 3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주춤했지만, 두 번째 출격에서 견제함을 과시한 바 있다.

이날 김광현은 고수 슬라이더를 앞세워 커리어 최다인 8탈삼진을 기록했고, 타석에서는 빠른 발을 이용해 내야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안타였다.

손흥민의 눈물...외신 “맨시티 위로도 슬픔 덜진 못해”

토트넘, 맨시티에 저 리그컵 준우승...프로 우승 ‘無’
손흥민 선발로 나와 슈팅 ‘0개’...현지 매체 ‘최저 평점’

Son Heung-Min In Tears After Tottenham Lose Carabao Cup Final To Manchester City



Son Heung-min was in tears on the pitch after Tottenham lost the Carabao Cup final 1-0 to Manchester City on Sunday.

우승 실패 후 눈물 흘린 손흥민. (캡처=스포츠바이블 홈페이지)

우승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한 손흥민(29·토트넘)이 그라운드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손흥민은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0-1로 패한 뒤 우승을 놓친 아쉬움에 평평 울었다.

프로 경력에서 우승과 연이 없는 손흥민이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한 그는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뒤 6번째 트로피를 들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로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일한 우승이다.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첫 우승 기회를 잡았지만, 리버풀에 밀려 실패했다.

이후 2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진출하며 첫 우승을 노렸지만, 이번엔 맨시티의 벽에 막혔다.

최근 조세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 구단 유스 출신인 라이언 메이슨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토트넘은 맨시티의 경기력에 압도 당했다.

슈팅 숫자에서 맨시티가 21개를 날릴 동안 단 2개를 시도하는 데 그쳤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한 해리 케인과 공격을 책임졌지만,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의 장기인 슈팅은 물론 역습 찬스에서 폭풍 같은 질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 후 영국 풋볼러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주며 “루카스 모우라 대신 교체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토트넘에 그가 필요했지만, 지켜 보았다”고 혹평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승을 놓친 손흥민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눈물을 쏟았다.

손흥민은 2014 브라질월드컵(조별리그 탈락),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8강 탈락, 2018 러시아월드컵(조별리그 탈락)에서도 원했던 성적을 내지 못하자 눈물을 흘렸다.

또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우승 실패 후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우는 손흥민을 본 맨시티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다.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카일 워커와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상대로 만났던 케빈 더 브라운이 그를 안아줬다.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눈물은 조명을 받았다. 영국 미러는 “누구보다 우승을 바랐던 손흥민이 경기가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면서 “맨시티 선수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슬픔을 덜어주진 못했다”고 전했다.

또 스포츠바이블도 손흥민이 우는 사진과 함께 “더 브라운의 위로를 받았지만, 이날 결과를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

빙속 이승훈, 종합선수권대회 남자부 종합우승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서울일번)이 제75회 전국남녀 종합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부에서 종합우승을 했다.

이승훈은 25일 서울 태릉국체스케이트장에서 벌어진 남자부 10000m에서 14분13초40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또 1500m에선 1분52초93으

로 3위를 기록했다.

전날 5000m에서도 우승한 이승훈은 합산 점수에서 김철민(스포츠포토)을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선 박지우(강원도청)가 종합우승에 성공했다. 박지우는 이날 여자부 1500m(2분

05초02)와 5000m(7분59초04)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날 500m, 3000m에 이어 4종목을 석권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47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선 김태운(서울시청)과 김현영(성남시청)이 우승했다.

뉴스